

오늘 오전 11시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다

현재,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계엄 적법성·포고령 등 5대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 이면 파면
'8대0 만장일치 인용' 전망 우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
정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는 대통령이 헌
정질서를 어디까지 훼손했는지를 따지고
헌법기관이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국민 앞에 밝히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현재는 지난 1일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
출한 뒤 결정문 문구와 낭독 순서 등을 조
율해왔다. 선고는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
대행이 사건 번호와 명칭을 낭독하며 시
작된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는 8인 체제로,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성
립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
각 또는 각하된다.

법조계에선 인용 결론이 사실상 정리됐
다는 관측이 많다. 한때 5대3 기각 우세였
던 구도는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일부 쟁
점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변곡점을 맞았
고, 조한창·김복형 재판관도 헌정 안정성
과 위헌 판단을 근거로 인용 쪽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이 인용이라 해도, 선고의 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동취재단**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현재는
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같이할 경우 결정
이유부터, 의견이 갈릴 경우 주문부터 읽
는 전례가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은 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
통령 탄핵 선고도 이유에서 주문 순으로
이뤄졌고, 8대0 만장일치 결론은 '헌정사
적 통일 메시지'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고
도 '만장일치나, 아니냐'에 따라 정치적
의미와 수용성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재판관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세부적으로 △비상계

엄 선포 적법성(헌법 제77조) △포고령
1호 위헌성(제21조) △국회 장악 시도
(제40조)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
지시(제114조) △정치·법조인 체포 지시
(제12조)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중
대한 위헌으로 판단되면 인용이 가능하
고 보고 있다.

최흥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계엄령
과 군 동원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중
대한 위헌 행위다. 명백한 위헌성을 기각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에 많은 지역
민들이 '80년 5월'을 떠올렸을 것 같다.
법치주의 국가 수장의 마지막이 탄핵 선
고라니 심히 개탄스럽다. 일각의 만장일
치 파면 가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군 통수권자의 계엄령 발
동 계획이 핵심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 탄
핵이 사의 추구와 국정농단이었다면, 이
번은 내란 수준의 헌정질서 훼손으로 성
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현재는 그간 헌

정의 핵심 가치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
했는지를 중심에 뒀을 것"이라며 "윤 대
통령의 행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
통령 탄핵 심판보다도 위헌·위법성이 더 무
겁다"고 말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
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덕
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윤
대통령은 재출마할 수 없다. 서울 한남동
관저도 즉시 비워야 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지만,
현재의 정당성 논란, 국론 분열, 여야의
정국 주도권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함께
결정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
다. 청사 주변에는 1만4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출입이 통제된다. 윤 대
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이
유로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은 "현 시점에서 인용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11회의 변론, 16명의 증
인 신문을 거친 방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중을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며 "현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지가 주목된다. 이
날 문대행이 낭독할 한 문장은 현 대한민
국 정치를 넘어, 헌정사 전체를 가르는 기
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4·5면 **정성현 기자**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韓 대미수출 1위 품목...타격 전망
업계, 미국 현지생산 확대 등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
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
가 3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
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됐다.

25% 관세가 적용되는 부품에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전기 부

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부품도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시
25%의 관세가 붙게 됐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
로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
부를 출범시킨 이후 부과한 품목별 관세
중 하나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
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
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지난달 12
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하
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
출 규모(707억8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
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
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국
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
라고 발표했지만 상호관세가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25%)에 가장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